



# 소리로 보는 세계상



2016 January  
vol. 186

- 02 목차 / 점자로 말해요 - 붉은 원숭이
- 03 시선집중 - 페이지자료 이대로 좋은가 / 이인화(국립장애인도서관장)
- 04 테마기획 - 신년사
- 06 인터뷰 - 마음을 메이크업 하는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임천수
- 08 포커스 - 시각장애인의 아름다운 하모니, “제2회 열린음악회” 개최!
- 09 함께 사는 이야기 - 우리나라 방송계에 고향 / 류창동(시각1급\_서울특별시 마포구)
- 10 지역별 이모저모 - 2015년을 마무리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행사 열려  
월드리포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태블릿 ‘블리탭’
- 11 뉴스앨범 - 스키캠프로 겨울을 느끼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취업자 평가회 열려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 2015년 감사했습니다!
- 12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함께 식사를 할 때

점자로 말해요

2016년 ‘병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의미하는데요.



붉은 원숭이



붉은 원숭이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점자 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씨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는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출입표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히]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차, 쉼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 데이터자료 이대로 좋은가 이인학(국립장애인도서관장)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자료(이하 데이터)는 시각장애인이나 독시장애인이 저작권의 보호 아래 전용 리더기를 통해 읽을 수 있는 국제 표준 디지털 문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지위는 빨리 받은 것에 비해 아직도 시각장애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의 현 주소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한 사람의 데이터 이용자로서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데이터 제작기관의 콘텐츠 생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데이터 콘텐츠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기관은 아마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일 것이다. 올해만 해도 대략 2300권(권당 약 400쪽 분량) 정도를 제작했다. 그밖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서울의 메이저급 시각장애 복지관과 도서관이다. 이들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 고민과 애로를 겪는 가장 주된 문제는 제대로 된 국내용 데이터 제작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메이저급 시각장애 복지관 및 도서관들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센스퍼블리셔를 통해 데이터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만족할만한 제작도구가 없는 문제, 숙련된 인력이 원활히 투입되지 못 하는 문제, 합의된 제작지침이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성된 콘텐츠들은 일부 점자정보단말기용 데이터 플레이어의 하드웨어 처리 속도에 부하를 주기도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일부 데이터 플레이어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데이터 플레이어란 점자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특정사의 점자정보단말기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어 표현이 조심스럽다. 필자가 말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복잡한 태그 속성을 갖는 데이터의 구조를 단말기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하기에 버거운 로딩과 이동, 검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종들이 아직도 시각장애 이용자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테스트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이 그나마 불만 없이 사용할 정도의 점자정보단말기는 최신형 기종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로 제작하는 데이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도서이므로 대개 음성형 데이터 플레이어보다는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고자 한다. 그런데 최신형 기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점자정보단말기로 독서하는 일은 포기해야 가깝다.

또, 단지 하드웨어의 문제만일까. 하드웨어의 처리 속도를 극복하는 최적의 모듈 개발은 어려운 일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데이터 플레이어 제조사가 할 몫이다. 다만 이들 제조사의 입장에서 생각한 점은 최적의 모듈 개발을 주문하기 전에 각 콘텐츠 제작기관이 최적의 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는 일이 우선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셋째, 데이터 보급에 문제가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보급하는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데이터투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다.

또 데이터를 보급함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는 필자의 기우라고 표현하고 싶다. 데이터를 서비스할 때는 제작처, 소장처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할 때 제작하는 기관과 소장하여 서비스하는 기관 간 법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 일처리가 쉽다.

이제 우리는 저작권 문제를 슬그머니 감추고 마냥 텍스트자료만 고집할 시절은 지났다. 이를 제작기관, 플레이어 제조사, 이용자 세 그룹이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찾아 읽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최고의 플레이어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

문제점으로 제기한 만큼 그 해답은 각자 위치에서 찾아주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 |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가 저물고 희망과 꿈을 품은 일출과 더불어 2016년의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원숭이 해인 2016년에는 사랑하는 10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매일매일이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시각장애인들과 약속한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명실공히 국제대회의 품격에 걸 맞는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시각장애인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한 해가 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관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음성으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점자음성표지판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2015년에 심은 뿌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권익옹호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직업확대 및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각장애인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안마업 및 전통적으로 지켜온 역리업 등이 내,외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각장애인은 일반 고용 시장에서 시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며, 의무고용률(국가 및 지자체 3%, 민간 2.7%)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고용률은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는 장애인개발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 및 직업 영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기관 설치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격제도와 교육사업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점역교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지도사 민간자격 운영 및 웹 접근성 전문가 양성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과정이 오프라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격증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웹 접근성 전문가 자격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등이 더 많이 배출되어 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점자자료 제작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등급제 전환으로 시각장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및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 전환은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도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차 시범사업 시 서비스 지원 심의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이 빠져 있어 관련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여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서비스 지원조사표상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항목들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차 시범사업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은 물론 심의위원회 및 평가단에 시각장애인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현재의 서비스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재활상담 및 권익옹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차별이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접근권 및 웹접근권 등과 같은 직접적인 차별 문제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침해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합회에서는 재활상담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공익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 시정요청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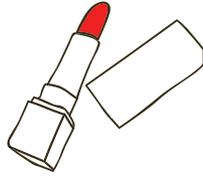
다섯째,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많은 생활필수품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확인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15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 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세부 계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제도권과의 갈등, 예산의 확보, 시각장애인계의 공감대 형성 등 선결해 나아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일들을 굽힘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제 뒤에 100만 시각장애인 및 가족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항상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당장 이익이 되거나 삶의 질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투자와 노력이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원해야 합니다. 그 동안 추진된 장애인 관련 많은 법령과 제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도자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투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병신년 한 해에는 우리 100만 시각장애 가정에 건강과 함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



마음을 메이크업 하는 남자,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으로 봉사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임천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공유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임천수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 때 멋진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10년 뒤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메이크업이었어요.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부모님께서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지셨어요.

메이크업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분 모두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지만요.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동안 진행해보셨나요?**

제가 2006년도에 메이크업을 교육 받고 2007년 초쯤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 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과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메이크업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이 2015년 이니까 대략 9년 정도 진행했네요.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을 가르치기로 하고 배우길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했는데 마음처럼 쉽게 모집이 안됐었거든요. 또 비장애인에게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것과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쉽게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들이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메이크업 강의를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봉사를 하면서 세상이 각박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힘들다보니 세상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진거죠.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 강의를 하면서 돌아보니 성장한 것은 저 자신이더라고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어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가며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거죠.

**셀프 메이크업을 하기 원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메이크업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컬러의 선택이나 바르는 정도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잘 어울리는 컬러나 화장품을 알고 있으면 메이크업 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메이크업 강의는 앞으로 얼마나 예정되어 있나요?**

현재는 업무로 인해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강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불러주신다면 제가 여건이 되는 선에서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처장하게 하지도 못할 일을 책임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수습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해진 메이크업 커리큘럼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매체는 녹음자라도 좋고 점자 도서도 좋으니 시각장애인이 쉽게 혼자서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아름다운 하모니, “제2회 열린음악회” 개최!

지난 12월 9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선율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악기를 배우는 시각장애인들의 선물로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녹일 만큼 따뜻했는데요. 온기로 가득 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제2회 열린음악회를 소개합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2회 열린음악회’는 오후 1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본 음악회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악기를 배우는 연주자들이 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무대로 “우리들의 두 번째 음악 이야기-Together”라는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사랑의 하모니 팀으로 피아노와 통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곡을 선보였으며, 두 번째 무대는 복지관의 조석재, 최상민 두 남자가 부르는

호소력 짙은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청아한 소리가 매력적인 가야금 3중주, 맑고 깊은 소리의 톤차임(핸드벨과 비슷한 악기), 밝고 경쾌한 우쿨렐레 연주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9월에 신설된 하모니카 팀이 동요로 첫 무대를 선보이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음악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열린음악회를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방송계에 고품

| 류창동(시각1급\_서울특별시 마포구)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시각장애인 지인들 중 방송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 중 상당수가 그 때의 일을 자랑거리로 여기기보다는 썩 기분 좋지 않았던 기억이라고들 하는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다. 평소에 거의 쓰지도 않는 검은색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라는 등, 집 앞처럼 평소에 자주 다녀서 익숙한 길인데도 굳이 그곳에서 길을 잃은 듯 헤매라는 등, 평소에 눈 뜨고 생활하는 사람한테 촬영 중에는 계속 눈을 감고 있으라는 등. 왜 이런 식의 연출을 강요하느냐고 물으면 제작진의 답변이 참 가관인 것이, "이렇게 하셔야 시청자들에게 시각장애인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다"는 식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길을 자연스럽게 걸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시각장애인답지 못하다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방송계에 자리 잡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잇을만하면 들려오는 것은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왜 꼭 시각장애인이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수많은 정체성들 중 시각장애라는 부분만 부각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는 시각장애인들도 비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2015년인데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 그중에서도 결정권을 쥐고 상당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직 뼈를 쓰던 시절,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황당한 이야기는 또 있다. 아직도 TV나 라디오 등 가장 대중적인 방송 매체에서는 장애인이 뭘 좀 잘하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든지 '장애를 딛고'라든지 심지어 '장애를 극복하고'라는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그 사람이 해온 다방면의 노력의 결과를 그냥 장애 하나 잘 이겨낸 결과 정도로 좁혀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것도 역시 방송 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이 뭘 좀 못하면

'장애가 있으니'라든지 '장애가 제약이 되어서'와 같은 말로 그 사람이 겪은 다른 어려움들은 배제한 채 장애 하나만으로 인해서 뭘가를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단정지어버리는 경우가 잦다.

방송처럼 대중들이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수용하게 되는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와 다르지 않은 프레임 속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 '장애'라는 것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같은 '장애'가 그 사람의 전체를 규정짓거나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말이다. 나는 시각장애인이기도하지만 류창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남성이며, 서강대학교에서 사학과 경영학과 교직 과정을 공부해 온 대학생이기도 하고, NC다이너스노와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이고, 누군가의 친구이자 선배이자 후배고, 내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기도 하며, 부모님에게는 아직도 걱정스러운 아들이고, 아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동반자에게는 언젠가 사랑받고 사랑할 사람이기도 한데 말이다. 이런 나를 설명함에 있어 시각장애 하나만 부각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일 것이다.

장애만을 부각시켜 내세운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으로 각자가 가진 다름과 개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다큐멘터리나 자선 프로그램에서만이 아니라, 토크쇼나 예능처럼 대중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출연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움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작하는 방송을 나는 향유하고 싶다.



## 2015년을 마무리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행사 열려

지난 2015년 12월 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상남도 하동군지회 (지회장 배춘국)에서는 '반딧불 나들이'가 진행되었습니다.

4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발하여 거제 포로수용소, 故김영삼 전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드라마 속 배경으로 다수 등장하기도 했던 바람의 언덕을 방문한 후 '반딧불 나들이'의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주지부에서는 12월 17일 목요일에 시각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국내·외 사회복지 동향 비교'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지부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광주지부의 '제1회 시각장애인이 만들어가는 나래夜' 등 2015년을 마무리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태블릿 '블리탭'

최근 오스트리아의 한 신생기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태블릿을 선보였습니다. 이 점자 태블릿의 이름은 '블리탭(Blitab)'인데요.

'블리탭'은 모든 종류의 문자와 그래픽, 기하학적 형상 등 시각 장애인에게 중요한 각종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리탭'은 기술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활용 태블릿으로 기계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액체를 활용한 기술로 결과물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작은 방울이 위아래로 들어가면서 태블릿이 의도한 화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블리탭'이 앞으로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스키캠프로 겨울을 느끼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에서 시각장애인과 가야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스키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스키캠프는 서울특별시노원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 지역 사회복지팀에서 주최해 시각장애인 참가자 13명과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학생 15명이 짝을 이뤄 진행되었는데요.

시각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친절함으로 무장한 가야대학교 학생들과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의 스키를 향한 열정은 추운 겨울 날씨를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봉사자 처음인 가야대학교 학생들의 철저한 안전 개념 덕분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시각장애인 참가자들과 2박 3일 동안 유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취업자 평가회 열려

지난 12월 11일 서울특별시노원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에서는 취업자 평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복지관에서 알선해 취업에 성공한 시각장애인 87명을 비롯, 그들의 가족, 사업체 관계자, 복지관 직원 등 1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평가회는 2015년 사업결과보고를 비롯해 시각장애인 고용에 애써준 사업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 취업자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고용과 꾸준한 후원으로 시각장애인 취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시각장애인 다수 고용업체 서울 아산병원,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위한 표준화된 시설을 갖춘 한국IBM 등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복지관의 박준석 관장은 “시각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취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 2015년 감사했습니다!

12월 12일 중계역에 위치한 플루토에서 2015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2015년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시고 후원해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 85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입력봉사자 및 낭독봉사자, 등산교실과 래프팅 교실, 스키캠프에 참여한 봉사자를 비롯해 점자교육, 섬유미용 교실 등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신 봉사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2015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과 식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에도 올해와 같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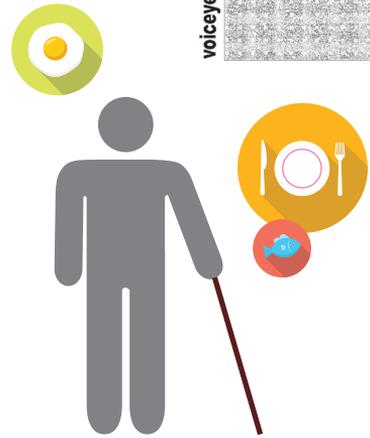
# 함께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 주문할 때, 보통 한 식당의 메뉴판을 이름과 가격을 모두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밥, 국, 개인용 접시위치를 알려주고, 중앙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말로만 해도 되고 젓가락을 들게 하여 손을 잡고 접시가 놓인 곳을 짚도록 하면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에 버섯전골, 한 시에 도라지무침, 두 시는 총각김치, 세 시에 백김치, 네 시에 샐러드구요. 마늘과 된장그릇은 국그릇 앞에 나란히 있어요"라고 말이죠.

반찬이 종류가 많아 번거롭더라도 한상에 차려진 음식이 뭘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 밥상에 놓인 음식이 뭘지 짚은 알고 먹어야지요.

참고로, 한 그릇 음식이 아닌 몇 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곳이면 개인용접시를 하나 달라고 청해서 따로 조금씩 털어드리는 것을 편해 하기도 합니다. 개인 취향이니 만큼 미리 물어보세요. 이때 음식의 양념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찬의 양념이 서로 섞이면 고유의 음식 맛도 잃게 되니까요.



##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로번호** 7608162
-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1월 186호

발행일 2016년 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든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